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모든 남자가 모든 곳에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의심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티모데 2:8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부모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전장에서 보호받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그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왜 한 국가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응답을 증언하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에서 요청한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주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이 일부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다른 이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사도행전 10:34). 따라서 하나님이 일부 기도는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경험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널리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더 높은 권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깨달은 표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과 연락을 시도하는 모든 이의 진실된 열망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더 높은 주권적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는 거의 보편적인 충동은 원초적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창세기 1:27).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 그의 성격 속의 신성한 형상은 크게 흐려졌고, 많은 경우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도하려는 충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종종 기도해야 한다는 를 느끼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의 기도 정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왜 그는 일부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다른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암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리기를 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말" 때문에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5-7). 이로써 우리는 기도에는 적절한 태도와 부적절한 태도,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임할 때 진실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방법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구하나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야고보서 4:3).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일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정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축복의 풍요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시편 92:1).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그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마음과 목소리를 들어 올려 감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기도는 창조주의 성품의 영광스러운 속성—그분의 지혜, 정의, 사랑,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려는 열망이 우리 기도의 많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 시편 29:1,2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적절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도록 권고합니다(요한일서 1:7-9). 바울은 이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거기서

자비를 얻고 모든 필요의 때에 도움을 주는 은혜를 찾는 것이라 말합니다. - 히브리서 4:16

또한, 주님으로부터 특정 축복이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특히 이 기도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는 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는 여행 중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백만 명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 서로 대립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각자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며, 당연히 그들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기도가 요청된 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정당화합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자녀가 전장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위한 기도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 따라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한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어떤 기도도 그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견이 사람들의 기도의 설득력이나 열정에 의해 흔들리거나 계획이 바뀌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게 얼마나 적은 신뢰를 가질까요!

“네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모든 경험 속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마음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예수님의 사례는 뛰어난

모범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덮쳤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 부서질 지경입니다.’ ... 그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 마태복음 26:38,39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로써 수모와 죽음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구약 의 성스러운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이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뽑자,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 요한복음 18:10,11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썼습니다(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1:29).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육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특정 지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무게는 이들에게 있지 않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점을 더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요한복음 15:7)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특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붙은 조건을 주목하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경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18) 이는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없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의 의지와 조화를 이룬 것만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유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13).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약속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네 왕국이 오소서”

누가복음 11:1에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범 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간결한 기도 개요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2절) 성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누가복음 3:23,38).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아들의 지위를 잃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즉 전체 인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태도는 항상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적절히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분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드러져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5:16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게 정죄받은 종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우리의 변호자 외에는 신성한 보좌 앞에서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1서 2:1).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용서와 모든 다른 축복을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4:16). 만약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바르게 거룩히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결코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주기도문)를 따를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타인의 축복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간구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마태복음 6:10; 루카복음 11:2).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세월을 통해 사람들이 기도해 온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모든 사람의 정당한 소망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국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건강,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류가 갈망하고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왕국을 통해 미리 예정되고 제공되었습니다. 이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그 왕국이 백성들에게 보장할 축복의 많은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도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응답은 때가 되어 올 때, 그들이 감히 희망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전장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는 자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기도할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귀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의 감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모는 때로 자녀가 죽음으로 잠들며 피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멸망하는 종족의 일원이며, 전장에서 죽는 것과 나중에 노환으로 죽는 것의

차이는 영원의 끝없는 흐름과 비교할 때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것을 훨씬 초월한다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미미한 능력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생명의 길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성취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성숙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합니다(시편 41:13; 90:2). 그는 우리 짧은 생애 내에 자신의 계획의 특정 단계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의 뜻에 맞는 특별한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가, 그 응답이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응답이 올 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날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의 ‘내일’ 시대, 즉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인 천년 기간에, 세상 이 정당하게 갈망해 온 모든 축복과,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들이 인류에게 풍성히 쏟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백성들은 그때 응답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도다... 그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 이사야 25:9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뜻과 조화되지 않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 원칙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백성에게 축복을 구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조화로운 것을 구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 마태복음 6:10

하나님은 그의 뜻과 조화를 이룬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은 그 뜻이 땅에서도 동일한 정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땅에 존재하는 악들이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적 세계의 삶에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큰 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 (시편 122:6; 나훔 1:15).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기도는 하나님이 평화를

세우시는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그 계획은 그의 왕국 계획입니다. (에스겔 37:21-28). 그는 왕국을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정부에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어깨에 정부가 있을 것이며, 그의 통치와 평화의 증가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 이사야 9:6,7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은 인류가 전쟁을 폐지하려는 열망을 동정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국제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전쟁이 불가피해 보일 때, 양측의 신실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차이점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마침내 평화의 실행 가능한 공식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지구의 통치권을 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6) 그때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에서 "주님의 산"으로 상징됩니다. 미가 4:1-4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리니 백성이 말하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칼을 낫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군축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며,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들이 군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의 뜻은 그의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고 다윗이 예언하였다. - 시편 46:9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고려의 2 부는 다음 달의 새벽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수 세기에 걸쳐 드러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답을 줄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